정토마을 스님 · 불자 30명 '음성 꽃동네' 호스피스 체험

◇정토마을 원장 능행스님(왼쪽)을 비롯 스님과 불자 30명이 7박8일간 음성 꽃동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지하철이나 다리 밑에서 아무 말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 걸인들을 맞아들여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 주며 장례까지 치뤄주는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 음성 꽃동네.

7일 무의탁 심신장애자와 걸인 등을 수용하는 가톨릭 최대의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이 곳에 불교계 유일의 말기 환자 전인치료센터를 운영중인 청원 정토마을(원장 능행)의 스님 · 불자 교육생 30명이 호스피스 케어 실습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꽃동네는 1976년 오웅진 신부가 최귀동이란 걸인 노인이 18명의 거지를 먹여살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걸인을 구제하기 위한 '사랑의 집'을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는 요양인 4,000여명, 수도자 300명, 장기봉사자 200명이 함께 사는 한국최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연수원'에서 안내를 맡은 수녀의 설명을 듣고 12명의 스님을 비롯한 교육생들은 연인원 20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삶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꽃동네야말로 보살행의 현장임을 실감했다. 거리를 떠도는 걸인은 연인원 4만여명, 이중 5%를 음성 꽃동네에서 보살펴 준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

교육생들은 네 조로 나뉘어 인곡자애병원, 심신장애인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배치되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학인 4명과 포교사회학과 학인 3명 등 10명의 스님들은 임종환자들이 많은 인곡 자애병원에 배치되었다. 1일부터 8일까지 7박8일간 진행된 호스피스 케어 교육으로 얻은 지식을 임상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실습이다.

7박8일간 임상실습

"복지불사 필요성 절감"

교육담당 수녀로부터 간병봉사의 요령, 환자를 대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스님들은 점심 식사 나르기, 음식 먹여주기, 통증완화 및 욕창 예방을 위한 맛사지, 말벗 되어주기, 청소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항문이 없는 환자, 다리가 잘린 환자,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등 죽음 문턱에 있는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스님들은 호스피스 케어란 질병 자체 보다는 인간 자체를 사랑과 자비로써 돌보는 가장 어려운 의료행위임을 절감했다.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살겠다는 희망을 접는 순간 죽음을 너무나 빨리 맞이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교육생 오심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을 인간의 존엄성 안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꽃동네에서의 현장 실습을 마친 교육생들은 한결같이 "진정 보살행을 실천하는 곳은 가톨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입을 모으며 "불교의 본 모습인 복지불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남해에 노인복지시설 짓는다

'화방복지원' 기금 10억…20일 기공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대표이사 효천스님)은 올 초 10억여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남해 망운사 일대 3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한 데 이어 20일 오전 11시 30분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인복지시설 화방동산 건립에 착수했다. 화방동산 건립 계획에 따르면 올해 3백여 평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하고, 2003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해 5백여 평, 2백여 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 등 순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해 2백여 명의 노인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단위 복지타운으로 조성된다. 화방복지원 대표이사 효천스님은 "쌍계사 본 말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화방동산이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종교초월 아름다운 봉사

성황사에 협박공문

조계종, 부안저널 고소

수행환경을 보존하려는 전통사찰에 대해 지역정서를 운운하며 지나치게 매도해 지역 불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전북 부안의 한 지역신문이 이번에는 근거 없는 협박성 공문을 사찰로 보내 조계종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부안저널 박재순 사장(편집인) 명의로 성황사(주지 진공)에 배달된 '산책로 상의 시설물 철거요청' 공문은 "성황사 앞 산책로는 7백여 년 동안 부안군민이 사용한 공도인데도 귀하가 금년 봄부터 절 경내를 넓히면서 일주문을 세운 뒤 뒤에는 콘크리트와 쇠로 철문을 세운 것은 불법으로 8월 10일까지 모두 철거하기 바란다"고 밝혀 마치 법원 재판관의 판결문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성황사에 시설물 철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재순씨는 또 "기일내에 철거 후 산책로를 원상으로 해놓지 않을 때는 교통방해죄로 형사고발은 물론 철거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며 성황사에 대한 근거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부안저널의 공문과 관련 성황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며, 조계종 제 24교구 본사 선운사를 중심으로 말사들이 연대해 성명서와 탄원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나눔의집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11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위안부 범죄 면책특권이라니…"

'나눔의 집' 할머니들 美국무부 항의방문

왜곡된 한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눔의집(원장 능광) 할머니들이 나섰다. 나눔의집은 23, 24일 미국 국무부와 연방의회를 방문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번 항의 방문은 위안부 생존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기각 신청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마련됐다. 부시 행정부는 4월 27일 미국 연방법원에 "국가간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며 본 소송은 정치적 사안이므로 법원이 다루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능광 스님은 "위안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면책특권을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안부 문제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부시 행정부에 각인시키고, 위안부들의 집단소송을 정식재판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지난해 9월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출신 위안부 생존자 15명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정식재판은 8월 1일 열리는 연방법원의 예비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의 방미는 미국 언론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능광 스님에 따르면 나눔의집의 할머니들은 재미한국청년연합의 도움을 받아 23일 국무부 청사에서 시위와 함께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24일 연방의회를 방문해 한국 위안부 생존자들의 결의안을 제출한다.

오종욱 기자

"日 역사왜곡 시정"

민족통일불교중앙협 히로시마서 8일 천도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내의 규탄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고 일본 군국주의 아래 숨진 조상들의 영혼을 천도하는 영가천도재가 일본에서 열렸다.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스님)는 8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국인위령탑 앞에서 한일 불교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역사교과서 시정촉구 수륙공영가천도재를 봉행하고 11일 귀국했다.

의장 법혜스님은 "조상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일본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스님 유흥장 출입' 적극 조사

재가연대, 조계종에 촉구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1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중진스님 네 명의 유흥장 출입사건과 관련 "종단 핵심지도자들은 이 사안을 파벌간 이해관계에 매달리기 전에 종단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론을 일으키는 발전적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직청규의 제정, 호법부의 청렴성 및 독립적 위상 제고 등을 촉구했다.

재가연대는 "호법부는 스님들의 유흥장 출입과 관련한 소문의 사실을 확인해 대중에게 설명을 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또한 사실을 확인해서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총무원장의 직접 지시 사항"이라면서 "호법부는 지금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고 있다는 다중의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2일 조계종 호법부로부터 공식 면담을 거절당했다는 재가연대는 총무원 호법부에서 인터넷 언론 '불교정보센터'에 관련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자체적으로 목격자 신원 확보를 통한 사실확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 4일 안거 해제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 스님들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댐정책' 국민토론회

18일, 지리산국민행동 등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범영남권댐반대투쟁위원회는 공동으로 18일 오후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의 '대형댐의 역할과 한계',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물관리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석한다.

김재경 기자

9월6일 창립 불교환경단체

"명칭 공모"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준비위원회'는 오는 9월 6일 창립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준비위는 28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우리 산하의 올바른 이해-백두대간과 사찰의 의미를 찾아서'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이날 김원기 백두대간보전회장은 '백두대간의 이해', 서재철 녹색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백두대간의 실태'를 주제로 강연한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불교, 환경, 생명살림을 상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단체의 명칭을 공모한다. 또 불교환경운동의 사업제안과 회원 및 지역활동가들을 모집한다. (02)720-1654 김재경 기자

은평노인복지관 '우수'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이 서울시의 상반기 평가에서 노인복지 부문 '우수' 복지관에 선정됐다. 서울시가 유니온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구 · 시 · 사립 복지관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종합만족도 89.70점, 경쟁지수 113점을 받아, 사립을 제외한 구 · 시립 복지관 17곳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6일 서울시 은평구로부터 은평구립도서관을 위탁받았다.

오종욱 기자

국토순례 지도자 교육

(사)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제2회 청소년 국토순례대행진 진행을 도울 청소년지도자 연수회를 21~23일 2박3일간 명천 영남건설 교육원에서 개최된다.

비로자나협회는 50여명의 지도자를 선발해 행사 전반에 대한 일정을 소개하는 한편 순례코스도 사전답사한다. 이번 연수회에 참가하는 지도자들은 향후 다양한 청소년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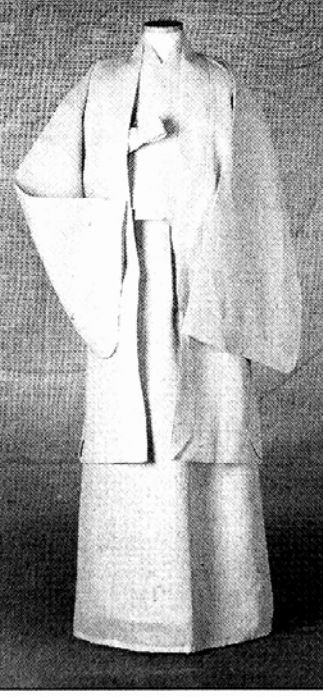
이경숙 기자

'마음고운 禪房'

불교 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無病長壽
무병장수를 기원하는「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윤년수의는 윤달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품 명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一品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적 特品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升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턱받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천심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턱받이, 면포 (총 18종)

삼베壽衣

▲ 오동나무 박스 ▲ 향나무 박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함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